보령시의회
BORYEONG CITY COUNCIL

보령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운영

2021 보령시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원 결의안 2건, 조례안 14건 등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지원 다해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021년 첫 회기인 제233회 임시회를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박상모 의원과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에서 낚시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리선을 낚시어선에서 제외한 2019. 2. 8. 일부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낚시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홍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보령시는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서부권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 중단과 하천용수의 자연친화적 운영, 공급거리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보령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 및 시와 함께 공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된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국장 및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금순 의장은 시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에서는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에서는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박금순 의장은 "코로나 시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의정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